

8-2-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3:10-15

말씀제목: 지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을 준비할 때이다!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10 절)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교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임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휴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실질적인 중대성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건은 우선 휴거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그분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항상 마음 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설명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머리 속에 담고 있으면서 입으로 되뇌이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다 보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후 5:9-10)

이 사실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다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롬 14:10,11)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분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12 절)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비석에는 금을 입혔고, 빵 차리는 상, 촛대, 그리고 향로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도 금으로 길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성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21:21).

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두라...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19-2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짓는다는 것에 대하여,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케 되면 이때에 하늘에 은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벧전 1:18,19)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말 3:7)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들어올려질 것임이라.”(슥 9:16)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혼을 이겨와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양육하여 보석같이 만들 때 그 사람은 그 때마다 보석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12 절)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모두 죽어서 하찮게 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평생 동안 한 일들이 모두 소멸되어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잣더미와 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던 삶은 모두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했던 일이 무엇이였는지 하나 하나 적어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일을 시작해보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